

남자간호사와 근무하는 여자 동료간호사의 간호현장 경험

서연옥¹ · 이경우²

¹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emale Peer Nurse's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Male Nurses

Suh, Yeonok¹ · Lee, Kyungwoo²

¹Professor,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Hongs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female nurses who are working with the male nurse as a colleague in the clinical settings. **Methods:** Eleven female nurses who were working with a male nurse over six months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s:** Six main meanings and nineteen themes emerged through this study. The six main meanings were as follows;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roles,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collaboration and trust as a peer, deficit of intimacy due to inappropriate attitude, weakening stereotypes ideas about male nurses, permissive mind of gender difference and individuality, expectations to the male nurses' contributions to nursing profession.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he male nurses' adaptation to the nursing clinical settings.

Key Words: Female, Male nurse,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 필요성

196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남자간호사는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남자간호사가 배출된 지 54년 만에 전체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1]. 이는 여성 직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간호사 직종이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게 되고[2],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분위기,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직장 및 보수의 안정성 등이 간호 직을 선택하는 남학생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3]. 또한 남성 본인들 뿐 만 아니라 주변의 부모, 가족 및 가까운 친지들도 남자간호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4].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임상현장에서의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등 간호 수준 및 간호 전문직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불만족스런 근무 조건, 과중한 업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및 대우, 여성 직업이라는 고정 관념 등으로 인하여 간호 직을 떠나는 남자간호사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이직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5, 6]. 또한 학교에서도 간호학과 내의 남학생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생활, 현장실습 및 교우관계 등에서 만족스러운 적응을 하지 못하는 남학생들이 많음을 보고하고 있어[3, 7]

주요어: 여자, 남자간호사, 질적연구

* 본 연구는 2017년도 순천향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Kyungwoo, RN, PhD Professor

Hyejeon College 25, Dahak-gil Hongseong-eup Hongseong-gun, Chungnam, 32244, Korea

Tel: 041-630-5294 HP: 010-2289-1208 Fax: 041-630-5296 Email: kwlee1228@hanmail.net

Received: 10 October 2016 Revised: 19 January 2017 Accepted: 6 February 2017

남학생 및 남자간호사들의 적응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간호계의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높고 활동이 활발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8], 여자 환자 간호와 관련된 장애 요인들[9]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 대부분의 간호현장에서 남자간호사는 주로 대상자와의 긴밀한 상호관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응급실, 수술실, 미취과, 중환자실 등 특수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며 특수부서에서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0]. 그러나 남자간호사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남자간호사의 근무가 일반 병동으로 확대되면서 병동 내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점차 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남자간호사 채용을 꺼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간호사에 대하여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서 보다 여자 동료간호사들의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11]가 있으며, 이에 반해 남자간호사들은 병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여자간호사와의 관계[6, 12]라고 하여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간호사들은 남자간호사들이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부족하며, 적응하지 못하면 타 직종으로 이직율이 높은 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13] 서로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로 인해 이들의 긍정적인 현장적응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남자간호사 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을 주로 보고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남자간호사들의 경험[3], 성역할 갈등[6], 이직 의도[15] 등으로 남자간호사의 관점에서 나온 결과들이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자간호사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자간호사의 관점에서 실시한 연구로는 남자간호사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13]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자간호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자간호사들의 현장 적응을 돕는데 여자 동료간호사와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호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느끼는 여자 동료간호사들의 경험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여자 동료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자 하며, 남자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간호 전문직 발전

에 기여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자 동료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들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구조와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여자 동료간호사들이 체험한 경험의 본질을 발견하고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남자간호사와 6개월 이상 간호 현장경험을 가진 여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방법은 의료기관의 간호부(과)의 동의 하에 수간호사들의 협조를 얻어 전체 병동 간호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알린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을 모집하였다. 가능한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면담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에 어떤 대상자를 면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참여자의 업무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 중 병원 규모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대학 부속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는 11명이었고 모두 여성이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8.8세이었고 근무경력은 평균 60.2개월이었으며,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평균 36.3개월이었다. 참여자들의 근무 병동은 응급실 2명, 중환자실 5명, 정신과 1명, 내 외과 1명, 수술실 2명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교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1040875-201501-SB-001)을 받아 승인 내용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동의서에는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허락 사항과 녹음 내용은 분석한 후 즉시 폐기할 것을 명기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면담

도중에도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신분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 처리할 것을 재차 설명한 후 참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8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이었다. 자료 수집은 반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개인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면담 회수는 참여자 별로 2~3회였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90분이었다. 면담은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병원 내의 소회의실을 이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간호현장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험했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을 통하여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었던 또 다른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면 자세히 말해 주시지요'라는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과 함께 간호 현장 내에서 경험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질문으로 좁혀 나가면서 동료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확인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어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도중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되어 참여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가 참여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한 후 녹음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분석하였으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면담 시 재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 순환적으로 진행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방법은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확인한 후 각 개인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혀내기 위하여 Giorgi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¹⁶⁾.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진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되돌려 확인하였다. Giorgi의 분석 방법에 따

라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진술을 중심으로 본질적 의미 단위를 확인하였고 본질적 의미단위로부터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하는 주제와 중심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심 의미를 구조로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상황적 구조 기술로 표현하였고 최종 단계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상황적 구조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험인 일반적 구조 기술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본 지식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간호학 전공 교수로서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여러 편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부터 면담의 진행 과정, 필사한 면담 내용과 현장기록노트에 근거한 분석 과정, 및 포화상태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 논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출한 주제 및 중심 의미에 대하여는 원 자료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과 참여자에게 되돌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참여자의 모호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전화 통화나 다음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순환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얻는 절차를 거쳐서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주제와 중심의미는 남자간호사와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이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2인에게 중심의미와 주제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한 결과, 19개의 주제와 6개의 중심 의미를 확인하였다(Table 1).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중심의미는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짐', '동료로서의 신뢰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하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함',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져감', '성별 특성과 개별성을 수용하는 마음', '간호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확인되었다.

1.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짐

다수의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업무 초기부터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이 주로 해 오던 간호업무를 과연 남자간호사가 만족스럽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성이 라는 성별 특성으로 인하여 간호수행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Table 1. Main Meanings and Themes

Theme	Main Meaning
Concerns that could not be well adapted to nursing	Having the preconceptions against male nurses' role
Worry that nurses role will be limitedly performed	
Thinking of being more strong and powerful than women	
Workload due to his inexperienced clinical performanc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collaboration and trust as a peer
Disappointment not to meet the expectations	
Do not have confidence to work with for a long time basis	
Difficulty in believing and giving nursing work	Deficit of intimacy because of inappropriate attitude
Uncomfortableness due to insisting on his own way strong complaints	
Being displeased with a impolite attitude	
Unpleasant feeling because of his poor personal hygiene	Weakening stereotypes ideas about male nurses
Confirming of his active efforts for adaptation	
Finding out unexpected good nursing skill	
Becoming empathize to the position and difficulties of male nurses	Permissive mind of gender difference and individuality
Confirming of difference and strengths in gender	
Accepting male nurse as a colleague	
Expectation of better treatment for nurses	Expectations to the male nurses' contributions in nursing profession
Confirming of his deep interesting in terms of nursing status improvement	
Belief in cohesion and unity of nurses by his leadership	
Being impressed by his sincerity for the pursuit of the missions and visions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던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에서는 여성보다 힘이 세고 강인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협적인 간호 상황이나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한다면 든든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여기에는 '간호 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 '간호업무 수행이 제한적일 것에 대한 염려', '여성보다 힘이 세고 강인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3개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1) 간호 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

참여자들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업무수행이 느리고 섬세하거나 꼼꼼한 면이 많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면에서 못하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민첩하면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업무들이 주를 이루는 간호 현장에서 남성들이 과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간호 현장에서 남자간호사가 잘 어울릴 수는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동료로서 함께 근무해야 할 여자간호사들 중에 남자간호사의 적응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 간호사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병동에 남자간호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자들에 비해 세심하고 꼼꼼한 점이 모자란 게 남자들의 공통된 성향인 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또 여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에서 남자간호사들이 잘 어울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참여자 11).

2) 간호업무 수행이 제한적일 것에 대한 염려

성별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거나 남자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를 거부하는 등 여러 제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함께 근무하는 본인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대신 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수술실 중 환자실 정신과 같은 특수 병동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 병동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라서 제한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벨라톤을 할 때 여성 환자는 여자간호사가 하고 남성 환자는 인턴이 하는데 여성 환자들 중에 분명히 남자간호사가 하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고..(참여자 9).

3) 여성보다 힘이 세고 강인할 것이라는 생각

참여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고 강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밤 근무나 응급실 또는 정신과 병동과 같이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간호 현장이나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일부 간호업무에서는 남자간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응급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는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한다면 그들로부터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가 오면 든든함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를 들면 남자 선생님이랑 일하면 등 간호할 때도 깡깡대면서 힘들게 올리지 않아도 되고 환자들이 불안정할 때도 더 수월할 거라고 해야 하나? 여자들보다 힘도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요. (참여자 2).

2. 동료로서의 신뢰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움

다수의 참여자들에게서 남자간호사와 동료로서 의 믿음과 동료의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자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느리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매우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남자간호사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대신 보완하고 처리해 줘야 하는 부담감 뿐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바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근무경력이 적은 간호사가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더욱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자간호사가 동료로서 과연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할까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미덥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환자의安危가 걱정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업무수행 능력이 미숙하여 본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음', '믿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어려움' 이라는 4개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미숙하여 본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남자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속도가 느리고 특히 복합적인 간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현저하게 미숙함을 보인다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표현하고 있었다. 이해력은 여자간호사들보다 오히려 우수한데 응용과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참여자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전에 경험했

던 것과 유사한 간호 상황이라서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결하지 못한다고 의아해 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바쁜 날에는 업무 시간이 지연되어 더더욱 힘이 든다며 불만을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남자간호사의 공감 능력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참여자도 다수 있었다. 감정 보다는 일 중심의 사무적인 태도가 남자간호사에게서 두드러지며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대신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설명을 하면 이해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업무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업무 상황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안되요. 이 전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연결해서 적용하면 충분한 상황인데 그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지연되고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대신 해 줘야 하고 이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참여자 7).

2)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

위험적인 상황에서 든든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호 수행에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남자간호사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일부 참여자들은 지적하고 교육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변화되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과 실망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답답하고 짜증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었다.

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 앞에서는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교육을 해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알려주고 기다려 줘야 하나..(참여자 10).

3)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음

함께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에게서 현재의 간호 현장이 평생직장이라는 확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다. 근무한 지 오래지 않아 다른 병원이나 심지어 다른 직종으로 옮겨 가려는 남자간호사를 접하면서 장기간 함께 근무할 동료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머지않아 그만 둘 수도

있는데 힘들게 가르치고 챙겨주고 기다려주는 노력과 열의가 과연 필요한 가라는 회의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조금 지나면 '여기도 있을 데가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아니면 계속 다른 직장 알아보고.. 제가 함께 일했던 남자간호사들이 거의 다 1-2년을 채 못하고 그만 두었으니까 오래 있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힘들게 챙기고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3).

4) 믿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어려움

맡긴 업무가 미덥지 못하고 걱정이 되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또한 여자간호사들과 비교할 때 남자간호사에게서 조심하는 면과 주의력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특히 남자간호사가 신규일 때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남자간호사의 행동반경이 크고 조심스러움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환자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조심스럽고 꼼꼼하지 못한 것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요. 체위 변경을 해도 중요한 게 많잖아요 힘을 줘서 환자를 들어서 포지션을 취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데. 힘만 팍 팍 쓰다 보니까 가끔씩은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좀 과격하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4).

3. 부적절한 태도로 인하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함

참여자들 중 일부는 남자간호사의 자기중심적이고 불손하며 과격한 반응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당혹감과 거리감까지 느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여기에는 '불만과 자기주장이 강하여 기분이 언짢음', '불손한 표현에 마음이 상함',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하여 불쾌함'의 3개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1) 불만과 자기주장이 강하여 기분이 언짢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간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표출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여자간호사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간호 업무가 복잡하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간호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여자간호사

들은 설명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남자간호사는 이해 못한 부분이나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싶은 말도 거침없이 해요 (참여자 8).

2) 불손한 표현에 마음이 상함

남자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임에도 본인 생각과 다르거나 불만이 있으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하여 무언의 감정을 표출하고 때로는 못 참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당혹감과 정서적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후배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간호사가 군대도 다녀오고 나이도 더 많은 남성이기 때문에 여자 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손함을 느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여자라고 이렇게 우습게 알고. 남자선배라면 안 그랬을 것을 여자선배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맘에 안 들면 확 대들지는 못하지만 고집스럽고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기분 나쁘게 할 말 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하면 될 것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지요' 이런 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10).

3)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하여 불쾌함

남자간호사의 두발 상태, 수염 관리, 땀 냄새, 담배냄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여자들하고만 근무하다가 남자간호사가 왔는데 덩치도 큰데다 막 땀 흘리고 그러니까...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같이 근무하기 싫을 때도 있죠 담배냄새 나는 것도 그렇고요 (참여자 11).

4.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져 감

여자간호사가 대다수인 간호 현장에서 남자간호사가 잘 어울리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간호 업무를 남성이 잘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의 간호를 거부하거나 불만을 제기해서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와는 다르게 남자간호사로부터 점점 기대 밖의 장점을 확인해 가는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동료 및 선후배 간호사를 챙기고 병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남자간호사의 모습에서 호뭇함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고 예상외의 간호 술기의 능숙함을 발견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여자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의 간호를 불편해 하는 간호 상황도 있지만 남자

환자들 중에는 오히려 남자간호사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었다. 여기에는 '간호 현장에 적응해 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대견함', '간호업무에서 예상외의 능숙함을 발견해 감' 의 2개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1) 간호 현장에 적응해 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대견함

남자간호사가 간호 현장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선후배 간호사 뿐 아니라 심지어 대하기 까다로운 여자 의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며 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 긴장과 예민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전환해 가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확인하며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흐뭇함과 대견함을 느끼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성격이 밝고 Nichols이 좋아서 선배 간호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남자 후배가 들어와서 챙기고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죠 또 본인 일이 끝나도 먼저 가지 않고 기다려요 도와드릴 것 없냐고 말하고 선배가 안가면 남아서 다른 것 하고 있고 자기가 먼저 간다고는 절대 안 해요 자기 일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여자간호사들도 많은데.. (참여자 7)

2) 간호업무에서 예상외의 능숙함을 발견해 감

환자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편안하게 대하는 등 남자간호사에게서 여성적인 섬세함과 함께 간호업무에서의 능숙함을 발견해가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여자간호사들 이상으로 숙련된 간호 기술, 의료 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 등을 발견하며 의외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남자인데도 정맥주사 기술이 뛰어나요 부러워요 남자들이 과격한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라인을 찾아 찌르는 것이 저희가 옆에서 보기도 너무 아프겠다 그랬는데 차츰차츰 기술이 늘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여자간호사들보다 더 잘 잡더라구요 사실 남자간호사들은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참여자 7)

5. 성별 특성과 개별성을 수용하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서 소수의 남자간호사가 겪는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성별 특성의 차이와 장점을 확인하며 여자간호사들에서 보다 남자간호사에게서 대범함, 편안함, 든든함, 성실함,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여자간호사에게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거나 남자간호사 중 일부에서의 문제점들이 마치 전체 남자간호사의 특성이므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었

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원칙을 지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남자간호사의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함께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현될 때까지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여기에는 '남자간호사의 입장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됨', '성별 특성의 차이점과 장점을 확인함', '남자간호사를 점차 동료로 받아들임' 이라는 3개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1) 남자간호사의 입장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됨

다수의 여자간호사들 사이에서 소수의 남자간호사가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나 남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간호계의 특성을 지적하며 남자간호사의 입장과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이 원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남자간호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는 여자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않고 여자들 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간호사한테 힘든 일은 엄청 시켜요 박스 나르게 하고 컴퓨터나 이런 작업은 다 시켜놓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구박하고..(참여자 5)

2) 성별 특성의 차이점과 장점을 확인함

함께 근무해 가면서 점차 여자간호사와 남자간호사 간에 성별 특성과 차이점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이 있었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남성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폭력적인 환자 및 주취자 등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막아 주는 등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복적인 지적과 감정적인 표현으로 후배간호사에게 상처를 주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대해주며 사소한 부분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대범함을 남자간호사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남자간호사가 느끼기는 하지만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묵묵히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배운 그대로 원칙을 지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에서 성실함을 느낀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성별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남자간호사의 양적 증가를 대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본인 근무 때 해결 못하면 다음 근무 조가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해결되지 않은 업무가 제 근무 때 넘어오면 싫거든요 제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특히 아래 연차 간호사가 일을 넘기면 짜증이 나요'지가 뭘데 나한테 넘겨? 재가 날 만만하게 보냐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하는 행동을 잘 아니까 남자선생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넘겨도 그 선생님이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4).

3) 남자간호사를 점차 동료로 받아들임

함께 근무해 온 기간이 늘어나고 남자간호사의 수가 점점 증가되면서 남자간호사를 거부하던 마음이 조금씩 감소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근무하면서 아직까지 불편하고 힘든 점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긍정적인 역할과 장점이 나타나려면 여자간호사에 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앞으로 다른 남자간호사가 본인 병동에 더 배정된다고 해도 크게 환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함께 근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앞으로 남자간호사가 병동에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이전처럼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남자선생님들이 잘 적응해 가고 있고 남자들끼리 잘 모이고 서로 공감도 잘해요 또 여자끼리만 있는 것보다 남자선생님이 같이 섞여 있으면 병동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임에서 분위기도 살리고 말도 잘 하고. (참여자 9).

6. 간호 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참여자들 중에는 남자간호사의 발전 가능성 뿐 아니라 남성들이 지닌 장점과 특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간호 직의 위상을 높이고 간호 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간호 직 처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함', '주도적인 역할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 '확고한 목표를 추구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비전을 확인함' 이라는 4개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1)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남자간호사가 여자간호사들 보다 호의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환자 및 보호자 뿐 아니라 의사들

도 남자간호사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여자간호사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생각은 남자간호사와 비교하여 차별을 경험했다는 억울함이나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남자간호사로 인하여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 직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남자간호사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훨씬 더 유순해요 보통은 불만이 있으면 의사들한테는 못하고 저희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남자간호사가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바로 공손해져요 남자간호사가 있으면 간호사들한테 함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2) 간호 직 처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함

남자간호사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급여, 복지, 승진 근무 환경, 간호와 병원 정책 등 관리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있었으며 이는 간호 직의 처우 개선에도 유익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자간호사들은 신규는 더 그렇고 경력이 조금 있는 간호사들도 급여 아니면 잘 안 물어보고 관심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간호사들은 신규인데도 급여는 물론이고 처우, 승진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건 간호사 처우 개선에서도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7).

3) 주도적인 역할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남자간호사는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이와 같은 리더십은 간호사들의 단합과 결속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믿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병동이나 병원 행사 이런 걸 해보면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간호과 행사가 있었는데 여자간호사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간호사들이 잘 화합하지 못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간호사에게는 화합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참여자 1).

4) 확고한 목표를 추구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비전을 확인함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미래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자간호사의 모습에서 간호 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비전을 확인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은 정보를 찾아서 서로 공유하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 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자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동기유발 및 남자간호사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표출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간호 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놀랐던 것이 목표가 진짜 확실하고 진지하고.. 학사하려고 학교도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발전에 관심이 많구나'. 또 저는 일하기 바빠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생님은 전공의 들한테 물어봐서 '이 환자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아보고 논문 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일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간호사들이 많아야 간호 직도 발전하고 대우 받고 그럴텐데. (참여자 5).

주제와 중심의미들을 토대로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상황적 구조 기술을 정리한 후 총 11명의 참여자들의 일반적 구조 기술로 통합한 결과, 다 수의 참여자들이 남자간호사와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기 전부터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동료로서 간호 현장에서 실제로 간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염려했던 우려들이 실제로 체험되는 다 수의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의 업무수행 속도가 느리거나,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 업무를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연구 참여자 본인들의 업무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남자간호사여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간호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어도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금방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이직하는 남자간호사들을 접하면서 더 이상 가르칠 의욕을 잃거나 동료로서 오래 근무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남자간호사의 표현 방식이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서운함과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하며 남자간호사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간호사의 긍정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여성들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사라져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자인

호사의 특성과 남자간호사의 특성의 차이점을 이해해 가면서 남자간호사의 개별성을 수용하는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남자간호사를 동료로 인정해 가고 있는 참여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적인 특성과 함께 여성적인 섬세함을 발견해가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의 장점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 간호 술기를 잘하는 면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업무처리는 느리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매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웬만한 일은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 주는 점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타 의료 직종이 남자간호사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참여자도 있었다. 남자간호사가 리더십과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간호사의 단합과 결속력을 높이기를 희망하며, 솔선수범하고 미래의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해 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든든함과 믿음직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 현장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그들의 잠재력과 장점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지원해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여자 동료간호사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구조와 의미들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중심 의미인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짐', '동료로서의 신뢰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하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함',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져 감', '성별 특성과 개별성을 수용하는 마음', '간호 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함께 근무하기 이전부터 남자간호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된 결과¹⁷⁻¹⁹⁾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가 여성 위주의 간호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며, 남성을 신체적으로 강인하다고 생각하여 주로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간호 상황에 남자간호사가 필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과 같이 좀 더 힘든 부서에 주로 배정되고^{3, 18)},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이 9.4%로 낮은 것¹⁴⁾ 이러한 성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자간호사들은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

니며,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선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병원을 이직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3]. 최근 들어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비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특수 병동에 비하여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직무 만족이 더 높고[6] 남자간호사들이 비판적 사고를 잘할 뿐 아니라 임상 술기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7].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도출된 남자간호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져간다는 중심의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생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남자간호사들은 초반에는 업무처리능력이 느리지만 점차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수행능력을 높이도록 돕는다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남성, 여성의 특성과 장점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남자간호사들의 장점은 남자간호사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장점이며 여자간호사와 근무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 남자간호사들은 성실함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유머를 이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0].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간호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본인이 맡은 일을 묵묵히 책임감 있게 처리하며 사소한 문제는 대범하게 넘기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수의 여성 집단에 속한 남자간호사의 고충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었고 남자간호사들이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수행하려는 부분과 이론적인 근거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자세 등은 여자간호사들이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이해하고 성별에 따른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남자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 계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의 업무처리능력이 미숙하여 본인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처음에 가졌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감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남자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여자간호사와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21], 이들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여 업무 처리가 느리지고 업무를 꼼꼼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하

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따라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자간호사 스스로는 여성들에 비하여 섬세하거나 꼼꼼함이 부족하고 느리다는 단점은 자각하고 있지만 힘든 간호업무에서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이 유리하고 여성들에 비하여 기구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3].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없이 자신들을 봐주기를 원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문제 인식에 대한 견해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서로에 대한 기대치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성 고정관념이나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제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밝히는 연구가 없는 것은 남자간호사들의 평균 임상근무경력이 5년 이내에 불과하여[23] 업무능력을 가늠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오히려 높은 것은 이러한 성별 차이에 따른 배타적인 현장분위기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입증하여 이들이 간호전문 인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업무를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곧 떠날 사람에게 힘들여 교육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동료로서 형성되어야 할 신뢰감과 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근무 후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23.6%이며 여자간호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고[13] 전직 또는 이직을 고려 중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와 같이 남자간호사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외부취업기회, 역할 갈등, 직무만족[15]과 같은 요인임을 볼 때 병원 환경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여자간호사들과의 관계형성과 간호 직을 평생 직업으로 여기고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남자간호사와 동료로 일하면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하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로 남자간호사의 표현 방식 및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 남자간호사는 자기주장이 강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손한 반응을 보여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립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여자간호사로부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남자간호사는 자존감이 상한다고 하며[6], 업무로 인한 어려움보다 여성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호소하였다[20]. 따라서 교육하고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달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남자간호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남자간호사를 수용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간호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24].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간호사들은 군입대로 인해 경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여자 동료간호사로 부터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여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22].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여자간호사가 69%에 달하여[23] 젊은 연령층의 간호사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남자간호사와의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남자간호사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현장 적응을 돕는데 동료나 선배 간호사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다[11]. 이러한 사실은 간호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할 때 간호 관리자들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및 의사들조차도 남자간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업무에 적응이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있으며, 급여와 승진 등 간호사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는 것은 남자간호사들이 본인들 스스로 인식하는 배[3]와 일치되는 점이다. 남성들은 남자로서 조직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 주도적이 되며 소수자의 입장에서 남성성을 강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결과[6]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는 보수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게 적용되는 현상이며[4]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 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남성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가 앞으로 자신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남자간호사들이 발휘하는 남성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간호 전문직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 결과[25]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남자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이 발휘되고 궁극적으로 간호직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성 중심적인 간호 직에서 남자간호사들도 간호 직을 평생 직업으로 여길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 and 적응을 돕는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자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들과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이나 인식[3]이 주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간호사들에게는 여자간호사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서로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로서 남성, 여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별 특성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양성이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존중하며 배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간호 전문직 발전에 커다란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여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체험했던 여자간호사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내재된 6개의 중심 의미인 '남자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짐', '동료로서 신뢰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하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함',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져 감', '성별 특성과 개별성을 수용하는 마음', '간호 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발걸하는 의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남자간호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간호 현실에서 본 연구 결과가 남자간호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남자간호사들의 현장 적응을 돕는 교육과 효과적인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간호사들의 간호수행역량상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간호사에 대한 여자간호사들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식변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남자간호사의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현장 및 임상 현장에서의 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REFERENCES

- Jeong GS. 10,000 people of male nurses in Korea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6 [updated 01-04; cited 2015].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6885>.
- Kim MA, Ko SH, Park E.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 Education. 2014;20(2):223-33.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23>.
3. Ahn KH, Seo JM, Hwang SK.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09;21(6):652-65.
 4. Kim I. A Q study of images on male nurses: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5. Mackintosh C. A historical study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7;26(2):232-6.
 6. Lee KJ, Kim MY.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4;26(1):46-57.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46>
 7. Dyck JM, Oliffe J, Phinney A, Garrett B. Nursing instructors' and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undergraduate, classroom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Today*. 2009;29(6):649-53. <http://dx.doi.org/10.1016/j.nedt.2009.02.003>
 8. Kelly NR, Shoemaker M, Steele T. The experience of being a male student nurse.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6;35(4):170-4. PubMed PMID: 8830131.
 9. Keogh B, O'Lynn C. Male nurses' experiences of gender barriers: Irish and American perspectives. *Nurse Educator*. 2007;32(6):256-9. <http://dx.doi.org/10.1097/01.NNE.0000299478.64809.82>.
 10. Tillman KR. The meaning of masculinity for mal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graduates. Houston, USA: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06.
 11. Inoue M, Chapman R, Wynaden D. Male nurses' experiences of providing intimate care for women cl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6;55(5):559-67.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6.03948.x>
 12. Herakova LL. Nursing masculinity: Male nurses' experiences through a co-cultural lens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2012;23(4):332-50. <http://dx.doi.org/10.1080/10646175.2012.722822>
 13. Seong JS, Yeom E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le nurses perceived by female nurses: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 572-84.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572>.
 14. Ahn MK, Lee MH, Kim HK, Jeong SH.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2):203-11.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2.203>.
 15. Kim SO. A prediction model on the male nurses' turnover inten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6.
 16. Giorgi A.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USA: Duquesne University Press; ; 1985.
 17. University S. Male nurses defy stereotypes United State2011 [cited 2016 03 september]. Available from: <http://source.southuniversity.edu/nursing-careers-not-defined-by-gender-a-look-at-the-male-nurse-52817.aspx>.
 18. Rajacich D, Kane D, Williston C, Cameron S, editors. If they do call you a nurse, it is always a male nurse: Experiences of 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Nursing Forum*; 2013: Wiley Online Library.
 19. Stanley D, Beament T, Falconer D, Haigh M, Saunders R, Stanley K, et al. The male of the species: a profile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6;72(5):1155-68. <http://dx.doi.org/10.1111/jan.12905>.
 20. Kim MY. An exploratory study of masculin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9;15(2):37-46.
 21. Lee BH. Comparison of job stress between male and female nurses. Ulsan: University of Ulsan; 2014.
 22. Shin JH, Seo MH, Lee MI.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3):287-9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3.287>.
 23. Lee MY, Park MR, Park MM, Lee HJ, Jeong EJ, Kim HJ. Hospital nurse staffing status survey. 2015.
 24. Roth JE, Coleman CL. Perceived and real barriers for men entering nursing: Implications for gender diversity.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2008;15(3):148-52.
 25. Wee H, Park Y, Song MS. High school boys'images of men a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2013;20(2):118-28.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18>.